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정현욱** · 변선영***

〈요 약〉

본 연구는 경영자의 근속연수와 미래의 조세부담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5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자의 근속연수는 미래의 법인세부담액에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미래의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긴 근속연수가 경영성과를 개선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미래의 조세부담이 증가하는지 아니면,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상향 이익조정이 발생하여 미래의 조세부담이 증가하는지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경영자 근속연수의 경우 보고이익(ROA)과는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영업현금흐름(CFO)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ROA와 CFO가 미래 법인세부담액과 관련성을 가짐에 있어,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어떠한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자의 근속연수는 ROA와 미래 법인세부담액 간의 양의 관련성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CFO와 미래 법인세부담액 간의 양의 관련성에는 추가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경영자의 긴 근속연수가 경영성과를 개선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미래의 조세부담이 증가되는 것 보다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상향 이익조정이 발생하여 미래의 조세부담이 증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길어지게 되면 이익을 상향으로 조정하는 유인이 높아지므로, 경영자의 근속연수는 미래의 법인세부담액과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근속연수와 관련된 연구들이 일관된 방향성을 가진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현시점에,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보고이익을 높이하고자 하는 유인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여점이 있으며, 높은 이익조정 유인은 재무정보의 품질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영자의 경우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재무보고의 품질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경영자의 근속연수, 법인세부담액, 이익조정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biglotos@dau.ac.kr, 주저자

*** 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부교수, byeunsy@da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24년 9월 10일

1차수정일 2025년 2월 7일

2차수정일 2025년 3월 15일

게재확정일 2025년 3월 18일

I. 서 론

본 연구는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조세부담과 관련성을 가짐에 있어 다양한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조세부담은 법인세부담액으로 측정하였다.

한국의 법인세 산출구조는 회계이익의 산출구조와 유사하므로 세무이익과 회계이익은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면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박종국·홍영은 2009 ; 정현욱 2017). 즉, 한국의 경우 회계이익이 증가하면 과세표준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법인세부담액이 증가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인세부담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회계이익을 증가(감소)시키는 변수들이 실증적으로 법인세부담액을 증가(감소)시키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백원선·최관 1999 ; 박종국·홍영은 2009 ; 곽태완·노준화 2008 ; 박서운 외 2013 ; 정현욱 2017 ; 정현욱 외 2014).

곽태완·노준화(2008)는 경영자가 재량발생을 이용한 이익조정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일시적 차이를 유발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곽태완·노준화(2008)는 재량발생을 통한 이익조정은 미래의 법인세부담액과의 관계에서 양(+)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Gibbons and Murphy(1992) 연구에서는 시장(market)이란 신임 경영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유인으로, Ali and Zhang(2015)은 신임 경영자의 경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시장에 알리기 위하여, 임기 후반부보다는 임기 초반부에 더 많은 상향 이익조정을 수행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경영자가 임기 후반부보다 임기 초반부에 더 높은 이익조정의 유인이 있다는 것은 경영자의 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보고이익을 높이고자 하는 유인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상철(2014)과 정현욱(2024)은 재직기간이 긴 경영자의 경우 보수주의 회계처리와 수익비용대응 수준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리구조를 따를 경우, 경영자의 긴 근속연수는 미래의 법인세부담액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Alfonso et al.(2019) 연구에서 경영자는 자신의 보상을 높이기 위하여 임기 초반부보다는 임기 후반부에 상향 이익조정을 수행할 유인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경영자의 임기가 길어질수록 회계이익이 높아질 유인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럴 경우,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미래의 법인세부담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근속연수와 관련된 상반된 논리구조를 근거로, 경영자의 근속연수와 미래의 법인세부담액 간의 관련성에 관한 다양한(5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인 경영자의 근속연수와 법인세부담액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사업보고서)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자의 근속연수 회귀부호는 유의미한 양(+)의 부호로 분석되었다. 즉,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미래의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보고이익의 증가는 경영성과가 개선되어 나타날 수도 있고, 경영자의 이익조정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미래의 법인세부담액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경영성과의 개선으로 나타난 결과인지 아니면, 이익조정이 발생하여 나타난 결과 인지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경영자 근속연수의 경우 보고이익(ROA)과는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영업현금흐름(CFO)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보고이익은 증가하지만, 영업현금흐름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이는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길어짐에 따라 영업현금흐름이 수반되지 않은 보고이익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보고이익과 영업현금흐름이 미래 법인세부담액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보고이익과 미래 법인세부담액 간의 양(+)의 관련성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영업현금흐름과 미래 법인세부담액 간의 양(+)의 관련성에는 추가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경영자의 긴 근속연수는 경영성과를 개선시켜 미래의 법인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 경영자의 긴 근속연수가 상향 이익조정의 유인이 되어 미래의 법인세부담이 증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이익을 상향으로 조정하는 유인이 높아지므로, 경영자의 근속연수는 미래 법인세부담액과는 긍정적인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근속연수와 관련된 상반된 연구결과 중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보고이익을 높이려고 하는 유인이 높다는 결과를 조세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는 기여점이 있다. 또한, 이익조정은 재무보고의 품질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근속연수가 긴 경영자의 경우 재무보고의 품질을 높이려고 하는 유인보다 보고이익을 높이려고 하는 유인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Ⅱ장에서는 법인세부담액과 경영자의 근속연수에 관한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을 제시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연구방법론으로, 연구모형과 표본 선정과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Ⅳ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제Ⅴ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의 설정

1. 조세부담(법인세부담액)과 관련된 선행연구

본 연구는 조세부담을 법인세부담액으로 측정하고자 하였으므로 법인세부담액과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자 한다. 법인세부담액의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 이익조정 그리고 공시수준 등의 변수들과 법인세부담액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있다(최동춘·서정록 2013 ; 정현욱 외 2014). 먼저, 지배구조가 법인세부담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정현욱 외(2014)와 최동춘·서정록(2013)의 연구가 있다.

정현욱 외(2014)는 한국의 경우 자본소득(시세차익)과 배당소득은 모두 과세의 대상이므로, 국내에 투자의사결정을 내린 외국인투자자들은 배당소득을 선호할 유인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경우 정현욱 외(2014)의 연구에서는 외국인투자자들의 경우 배당의 재원이 되는 회계이익에 관심을 가질 것이므로, 높은 외국인지분율은 법인세부담액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현욱 외(2014)의 결과는 박종국·홍영은(2009)의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박종국·홍영은(2009)의 연구에서는 외국인투자자들의 경우 회계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동춘·서정록(2013)은 국내기업의 대주주의 경우, 기업의 부(현금)가(이) 사외로 유출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유인으로 최동춘·서정록(2013)은 대주주의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회계이익을 높이는 의사결정보다 조세부담을 낮추는 의사결정을 내릴 유인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곽태완·노준화(2008)는 경영자가 이익조정을 수행할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현재 혹은 미래의 조세부담과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이연법인세 회계의 적용으로 인해 재량발생 이익조정의 경우 당기(t기)의 법인세부담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미래의 법인세부담액에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백원선·최관(1999)은 법인세비용 추정액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의 경우 재량발생 이익조정을 이용하여 회계이익을 낮추고자 유인은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서윤 외(2013)는 자율공시의 수준이 높은 기업의 경우 이익조정의 크기(재량발생의 절댓값)가(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정현욱(2017)은 자율공시와 법인세부담 간의 관련성을 실증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기업의 자율공시 수준이 높은 경우 높은 법인세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자율공시의 수준이 높은 기업의 경우 이익조정의 유인이 높으므로, 자율공시의 수준은 조세부담과 양(+)의 관련성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이현주 외(2013)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대주주의 통제권 하에 있는 내부거래를 통하여 소득

을 이전할 유인이 높이며, 이러한 소득이전은 결과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종권(2000)은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저세율 해외 자회사)를 둔 국내 모기업은 매출거래 보다 매입거래를 사용하여 조세부담을 낮추고 있다는 실증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안숙찬(2011)의 연구에서는 기업집단 내부거래(해외 내부거래)가 높아질 경우, 연결실체 법인세부담은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황광철 외(2020)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하여 법인세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과세소득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거쳐 측정된다. 또한 과세소득의 측정과정은 회계이익의 측정과정과 유사한 면이 많으므로, 과세소득은 회계이익과 동일한 방향성을 가질 유인이 높다(박종국·홍영은 2009 ; 정현욱 외 2014). 따라서, 법인세부담액과 관련된 연구에서 회계이익을 증가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는 변수들은 일관되게 법인세부담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경영자의 근속연수와 관련된 선행연구

Hambrick and Fukutomi(1991) 연구에 따르면, 경영자의 업무는 불확실성(uncertainty)이 높고, 복잡한 특성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Hambrick and Fukutomi(1991) 경우, 경영자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특성(개인적 성향과 과거 업무 경험 등)에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영자의 인지적 특성이 기업 외부환경의 요구에 적합할 경우 기업의 성과는 증가하게 된다(Finkelstein and Hambrick 1996 ; 김일경·이호욱 2013 ; Hambrick and Fukutomi 1991). 하지만, 경영자는 부임 초기 기업의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기업 외부환경의 요구를 능숙하게 대처하는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다.

Miller(1991)는 경영자가 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경영전략이 있고 기업 주위 환경을 잘 인지할 경우, 이는 경영성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자는 재임 기간의 후반기에 들어갈수록 CEO가 회사에 대한 자신의 관점에 더 강하게 몰입하고 구식 패러다임에 근시안적으로 전념하며 외부환경에 덜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Miller 1991 ; Levinthal and March 1993).

김일경·이호욱(2013)은 재임 기간이 긴 경영자의 경우, 자기확신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경영자의 학습 지체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후반기에는 CEO가 회사에 대한 자신의 관점에 더 강하게 몰입하고 구식 패러다임에 근시안적으로 전념하며 외부환경에 덜 적응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Miller 1991 ; Levinthal and March 1993). 따라서 김일경·이호욱(2013)은 경영자의 긴 재임 기간은 성과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Wu et al.(2005)과 Yook and Choi(2022)는 경영자의 경우 재직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확장하여 기업의 성과를 개선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김일경·이호욱(2013)은 경영자의 경우 재임 기간이 길어지면서 기업 운영에 있어 혁신보다 효율성 제고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효율성이 제고될 경우, 이는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최정호 2014). 이러한 점에서, Garcia-Blandon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경영성과는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Triyani et al.(2020)은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ROE가 증가한다는 실증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경영자 근속연수와 관련된 연구는 경영자의 인지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경영자의 근속연수와 기업의 성과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있지만,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근 경영자의 근속연수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근속연수와 재무정보의 산출 간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시장(market)은 신입 경영자에 대한 확신을 두지 않을 수 있다(Gibbons and Murphy 1992). 따라서 Ali and Zhang(2015)는 신입 경영자의 경우 자신에 대하여 시장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임기 후반부보다 임기 초반부에 더 많은 상향 이익조정을 수행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Alfonso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시장의 경우 이러한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전략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 경영자가 보상(주식기준보상(equity-based compensation))을 높이기 위하여 임기 초반부보다는 임기 후반부에 상향 이익조정을 수행할 유인이 높다고 밝혔다. 즉, 그들은 경영자의 경우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회계이익을 높이기 위한 이익조정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철(2014)은 경영자의 임기가 증가할수록 비대칭적 원가형태는 감소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비대칭적 원가형태의 경우 이익조정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구정호 2011). 이를 근거로, 이상철(2014)은 국내의 경우 경영자의 임기가 길어질수록 경영자는 장기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이상철(2014)은 근속연수가 긴 경영자의 경우 단기적인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의사결정을 내리기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리므로, 경영자의 임기가 길어질수록 대리인 비용은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Muttakin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경우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보수적인 회계처리로 재무보고의 질을 높이려 하는 유인이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정현욱(2024)은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수익비용대응 수준은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높은 수익비용대응 수준은 이익의 질을 높이는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백원선(2011)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정현욱(2024)의 결과는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회계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유인

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가설의 설정

박종국·홍영은(2009)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세무보고이익은 재무보고이익(회계이익)과 측정방법 상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세무보고이익은 재무보고이익과 동일한 방향성을 가질 유인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광태완·노준화(2008)는 경영자가 재량발생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일시적 차이를 유발하므로, 재량발생을 이용한 이익조정은 미래의 법인세부담액을 높이는 유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Ali and Zhang(2015)은 신입 경영자의 경우 시장에 긍정적인 인식을 알리고자 하는 유인이 높을 수 있으므로, 임기 후반부보다는 임기 초반부에 상향 이익조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유인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길어지면 이익조정의 유인이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이상철(2014)과 정현욱(2024)은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보수주의 회계처리가 강화되고, 수익비용대응 수준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보고이익을 높이고자 하는 유인보다 회계정보의 질을 높이하고자 하는 유인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럴 경우, 경영자의 근속연수는 미래의 법인세부담액과의 관계에서 음(-)의 관련성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Alfonso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경우 자신의 보상을 높이기 위하여 임기 후반부에 들어갈수록 상향 이익조정을 수행할 유인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는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보고이익을 높이고자 하는 유인이 높음을 의미하며, 이때 경영자의 근속연수는 미래의 법인세부담액과 양(+)의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상반된 논리구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가설 1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경영자의 근속연수는 법인세부담액과 관련성이 없다.

정현욱 외(2014)와 정현욱(2017)은 수익성이 높아질수록 법인세부담액은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수익성의 증가는 영업현금흐름을 수반하게 된다. 즉, 이는 수익성이 좋아질수록 영업현금흐름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자의 근속연수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일관된 연구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Finkelstein and Hambrick 1996 ; Hambrick and Fukutomi 1991 ; Wu et al. 2005 ; 김일경·이호욱 2013 ; Garcia-Blandon et al. 2019 ; Triyani et al. 2020 ; Yook and Choi 2022).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를 준용할 경우, 경영자의 근속연수는 수익성 증가와 우수한 영업현금흐름의 창출로 연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를 준용할 경우, 경영자의 근속연수는 수익성과 영업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경영자의 근속연수는 수익성과 영업현금흐름 간에 음(-)의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Alfonso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경영자가 자신의 보상을 높이기 위하여 임기 후반부에 이익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영자의 임기 후반부에 이익조정이 일어날 경우, 경영자의 근속연수는 수익성 지표와 양(+)의 관련성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경영자의 근속연수는 영업현금흐름과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기업의 수익성과 영업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리구조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설 2와 가설 3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2 : 경영자의 근속연수는 수익성과 관련성이 없다.

가설 3 : 경영자의 근속연수는 영업현금흐름과 관련성이 없다.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경영성과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이익조정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Ali and Zhang 2015 ; Alfonso et al. 2019).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이익조정의 유인이 증가(감소)한다는 논리를 따를 경우, 경영자의 근속연수는 수익성과 법인세부담액 간의 양(+)의 관련성은 더욱 강화(약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경영자의 근속연수는 영업현금흐름과 법인세부담액 간의 양(+)의 관련성에 있어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기업의 성과가 증가(감소)할 경우 경영자의 근속연수는 수익성과 법인세부담액 사이의 양(+)의 관련성 및 영업현금흐름과 법인세부담액 사이의 양(+)의 관련성을 강화(약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반된 논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가설 4와 가설 5를 설정하였다.

가설 4 : 경영자의 근속연수는 수익성과 법인세부담액 간의 양(+)의 관련성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가설 5 : 경영자의 근속연수는 영업현금흐름과 법인세부담액 간의 양(+)의 관련성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론

1. 연구모형

아래의 식(1)의 경우,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 모형이고, 식(2)와 식(3)은 가설 2,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이다. 마지막으로, 식(4)와 식(5)는 가설 4와 가설 5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이다.

$$\begin{aligned}
 TB_{i,t+1} = & \beta_0 + \beta_1 LS_{i,t} + \beta_2 FOR_{i,t} + \beta_3 RND_{i,t} + \beta_4 CAP_{i,t} + \beta_5 BIG4_{i,t} \\
 & + \beta_6 LEV_{i,t} + \beta_7 ROA_{i,t} + \beta_8 CFO_{i,t} + \beta_9 GRW_{i,t} + \beta_{10} SIZE_{i,t} \\
 & + \beta_{11} SMO_{i,t} + \beta_{12} ESG_{i,t} + \beta_{13} YD_{i,t} + \beta_{14} IND + \epsilon_{i,t}
 \end{aligned} \quad \text{식(1)}$$

$$\begin{aligned}
 ROA_{i,t} = & \beta_0 + \beta_1 LS_{i,t} + \beta_2 FOR_{i,t} + \beta_3 RND_{i,t} + \beta_4 CAP_{i,t} + \beta_5 BIG4_{i,t} \\
 & + \beta_6 LEV_{i,t} + \beta_7 CFO_{i,t} + \beta_8 GRW_{i,t} + \beta_9 SIZE_{i,t} + \beta_{10} SMO_{i,t} \\
 & + \beta_{11} ESG_{i,t} + \beta_{12} YD_{i,t} + \beta_{13} IND + \epsilon_{i,t}
 \end{aligned} \quad \text{식(2)}$$

$$\begin{aligned}
 CFO_{i,t} = & \beta_0 + \beta_1 LS_{i,t} + \beta_2 FOR_{i,t} + \beta_3 RND_{i,t} + \beta_4 CAP_{i,t} + \beta_5 BIG4_{i,t} \\
 & + \beta_6 LEV_{i,t} + \beta_7 ROA_{i,t} + \beta_8 GRW_{i,t} + \beta_9 SIZE_{i,t} + \beta_{10} SMO_{i,t} \\
 & + \beta_{11} ESG_{i,t} + \beta_{12} YD_{i,t} + \beta_{13} IND + \epsilon_{i,t}
 \end{aligned} \quad \text{식(3)}$$

$$\begin{aligned}
 TB_{i,t+1} = & \beta_0 + \beta_1 LS_{i,t} + \beta_2 LS_{i,t} \times ROA_{i,t} + \beta_3 FOR_{i,t} + \beta_4 RND_{i,t} + \beta_5 CAP_{i,t} \\
 & + \beta_6 BIG4_{i,t} + \beta_7 LEV_{i,t} + \beta_8 ROA_{i,t} + \beta_9 CFO_{i,t} + \beta_{10} GRW_{i,t} \\
 & + \beta_{11} SIZE_{i,t} + \beta_{12} SMO_{i,t} + \beta_{13} ESG_{i,t} + \beta_{14} YD_{i,t} + \beta_{15} IND + \epsilon_{i,t}
 \end{aligned} \quad \text{식(4)}$$

$$\begin{aligned}
 TB_{i,t+1} = & \beta_0 + \beta_1 LS_{i,t} + \beta_2 LS_{i,t} \times CFO_{i,t} + \beta_3 FOR_{i,t} + \beta_4 RND_{i,t} + \beta_5 CAP_{i,t} \\
 & + \beta_6 BIG4_{i,t} + \beta_7 LEV_{i,t} + \beta_8 ROA_{i,t} + \beta_9 CFO_{i,t} + \beta_{10} GRW_{i,t} \\
 & + \beta_{11} SIZE_{i,t} + \beta_{12} SMO_{i,t} + \beta_{13} ESG_{i,t} + \beta_{14} YD_{i,t} + \beta_{15} IND + \epsilon_{i,t}
 \end{aligned} \quad \text{식(5)}$$

TB : 법인세부담액($\ln(\text{법인세부담액}_{t+1})$)
 LS : 경영자의 근속연수($\ln(\text{경영자 근무 개월(month)수})$)
 FOR : 외국인지분율(t 기 동안의 평균 보통주 외국인지분율)
 RND : 연구개발비¹⁾

1) 연구개발비(RND)= $((\text{연구비}(I/S)t + \text{경상개발비}(I/S)t + (\text{개발비}(B/S)t - \text{개발비}(B/S)t - 1) / \text{매출액}(I/S)t)$

<i>CAP</i>	: 자본집약도($(\text{유형자산}_t - \text{토지}_t - \text{건설중인자산}_t) / \text{자산총액}_t$)
<i>BIG4</i>	: 감사품질(감사인의 규모(t 기에 대형 감사법인이 감사를 수행하면 1, 아니면 0))
<i>LEV</i>	: 부채비율($\text{부채총액}_t / \text{자산총액}_t$)
<i>ROA</i>	: 총자산이익률($\text{법인세차감전순이익}_t / \text{자산총액}_t$)
<i>CFO</i>	: 영업현금흐름($\text{영업활동 현금흐름}_t / \text{자산총액}_t$)
<i>GRW</i>	: 매출액성장률($(\text{매출액}_t - \text{매출액}_{t-1}) / \text{매출액}_{t-1}$)
<i>SIZE</i>	: 기업규모($\ln(\text{자산총액}_t)$)
<i>SMO</i>	: 이익유연화($(-1) \times 5$ 년 동안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표준편차/5년 동안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의 표준편차)
<i>ESG</i>	: ESG 점수
<i>YD/IND</i>	: 연도더미/산업더미

식(1)의 β_1 은 가설 1에 대한 검증계수이며, β_1 이 유의한 양(+)의 부호를 제시할 경우, 경영자의 근속연수는 법인세부담액과 양(+)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β_1 이 유의한 음(-)의 부호를 제시한다면, 경영자의 근속연수는 법인세부담액과 음(-)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2)와 식(3)의 종속변수는 총자산이익률(ROA)과 영업현금흐름(CFO)이다. 경영자의 긴 근속연수가 기업 경영에 효율성을 높이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경영성과를 개선시킬 경우, 식(2)와 식(3)의 β_1 은 모두 유의한 양(+)의 부호를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수익성 및 영업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식(2)와 식(3)의 β_1 은 음(-)의 부호를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식(2)의 β_1 은 유의한 양(+)의 부호가 나타나고, 식(3)의 β_1 은 유의성이 없을 수도 있다. 이는 경영자의 근속연수는 수익성을 증가시키지만, 현금흐름은 수반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길어지면 상향 이익조정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식(4)의 β_2 는 가설 4에 대한 검증계수이다. 식(4)의 β_2 가 유의한 양(+)의 부호를 제시할 경우, 경영자의 근속연수는 수익성과 법인세부담액 사이에서 양(+)의 관련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식(4)의 β_2 가 유의한 음(-)의 부호를 제시할 경우, 경영자의 근속연수는 수익성과 법인세부담액 사이에서 양(+)의 관련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볼수 있다.

식(5)의 β_2 는 가설 5에 대한 검증계수로, 식(5)의 β_2 가 유의한 양(+)의 부호를 제시할 경우, 경영자의 근속연수는 영업현금흐름과 법인세부담액 사이에서 양(+)의 관련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식(5)의 β_2 가 유의한 음(-)의 부호를 제시할 경우, 경영자의 근속연수는 영업현금흐름과 법인세부담액 사이에서 양(+)의 관련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다음과 같다. 정현욱 외(2014)의 연구에서는 외국인투자자들은 높은 보고이익을 선호하므로, 외국인지분율이 높아질수록 법인세부담액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투자자의 의사결정이 법인세부담액에 주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식(1)에 FOR을 포함하였으며, FOR 회귀부호는 양(+)의 부호로 예상된다.

RND 및 CAP는 연구개발 활동 및 자본투자가 법인세부담액에 주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하여 식(1)에 포함했다(안숙찬 1996 ; 신승묘 2005 ; 정현욱 2017). 정현욱(2017)은 연구개발 활동 및 자본투자가 높은 기업의 경우 법인세 절감 유인이 높다고 설명한다. 이런 경우에 RND 및 CAP 회귀부호는 식(1)에 모두 유의한 음(-)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감사품질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식(1)에 BIG4를 포함하였다. 최미화 · 이균봉(2010)에 따르면, 높은 감사품질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품질이 기업의 조세부담을 양(+)의 방향으로 조정하는지 혹은 음(-)의 방향을 조정하는지는 실증의 문제로 판단되어, BIG4의 기대부호는 예측하지 않는다.

LEV는 이자비용의 감세효과를 통제하기 위함이고, ROA는 기업의 수익성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함이다(Graham and Tucker 2006 ; 고윤성 · 백혜원 2010 ; 정현욱 외 2014). LEV 회귀부호와 ROA 회귀부호는 식(1)에서 음(-)의 부호와 양(+)의 부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영업현금흐름과 매출액성장률은 법인세를 증가시킬 유인이 높아질 수 있다(안숙찬 2011 ; 최보람 2013 ; 정현욱 2017). 따라서 본 연구는 식(1)에 CFO와 GRW를 포함하였으며, CFO와 GRW 회귀부호는 양(+)의 부호로 예상된다. 식(1)의 SIZE는 기업규모가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박종국 · 홍영은(2009) 및 Porcano(1986)는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조세 전문가를 활용하여 조세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유인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식(1)의 SIZE 회귀부호는 음(-)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곽태완 · 노준화(2008)와 정현욱(2017)은 이익조정 수준이 커질수록 법인세부담액은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유재권 · 백원선(2011)은 이익유연화 정도는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있어 중요한 동기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익유연화 정도가 크다는 것은 보고이익의 변동성이 낮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하여 식(1)에 SMO를 포함하였으며, SMO 회귀부호는 음(-)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욱 · 변선영(2022)은 ESG 활동과 법인세부담액 사이에는 양(+)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식(1)의 ESG는 기업의 ESG 활동이 조세부담에 주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이며, 식(1)의 YD와 IND는 연도효과 산업효과를 통제하기 위함이다.

2. 표본의 선정

이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유가증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아래에 제시된 조건에 만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식(1)의 종

속변수는 $t+1$ 기이다. 따라서 식(1)의 종속변수인 미래 법인세부담액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이다.

- (1) 한국 ESG 기준원(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 ESG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업
- (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사업보고서에서 경영자(대표이사)의 취임일(근속연수)을 수집할 수 있는 기업(단,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일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인을 대표이사로 측정하였다)
- (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사업보고서에서 법인세부담액을 수집할 수 있는 기업
- (4)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주)한국신용평가정보의 Kis-Value 데이터베이스에서 외국인지분율(보통주 평균) 및 재무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업
- (5) 결산일이 12월이고 적정의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
- (6) 사업보고서에 음(-)의 법인세부담액을 보고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

아래의 <표 1>은 위에 제시된 조건들을 근거로, 표본 선정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조건 (1)과 조건 (2)에 해당하는 기업은 2,086개(기업-년)로 분석되었다. 이 중 조건 (3)과 조건 (4)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392개(기업-년)이며, 조건 (5)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71개(기업-년)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표본은 1,623개(기업-년)가 되었다.

<표 1> 표본의 선정과정

	조건 (1)에 해당하는 기업	4,043개(기업-년)
(-)	조건 (2)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46개(기업-년)
(-)	조건 (3)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1,911개(기업-년)
(-)	조건 (4)와 조건 (5)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92개(기업-년)
(-)	조건 (6)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71개(기업-년)
	최종표본	1,623개(기업-년)

<표 2>는 본 연구의 최종표본(1,623개(기업-년))에 대한 연도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2>를 살펴보면, 2016년, 2017년 및 2018년 표본의 수는 270개(기업-년), 281개(기업-년) 및 256개(기업-년)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9년과 2020년 표본의 수는 259개(기업-년)와 274개(기업-년)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21년의 표본 수는 283개(기업-년)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최종표본은 연도에 따라 약간 차이는 나지만, 연도 별로 고른 분포를 보인다.

〈표 2〉 표본의 연도별 분포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합계	270	281	256	259	274	283	1,623

IV.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분석

〈표 3〉은 본 연구의 모형(식(1))에 포함된 개별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TB의 경우 평균(중위수)은 0.0268(0.0198)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0.0279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TB 평균은 중위수보다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LS의 평균과 중위수는 22.2840과 22.3490으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2.24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경영자 근속연수 측정치인 LS는 평균과 중위수가 유사한 값을 제시하고 있다.

〈표 3〉 변수의 기술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1분위수	중위수	3분위수	최댓값
TB	22.2840	2.2482	13.2569	21.0943	22.3490	23.6610	29.3765
LS	4.6105	1.3005	0.6931	3.5835	4.7875	5.8171	6.6280
FOR	0.1051	0.1161	0.0000	0.0226	0.0569	0.1471	0.6572
RND	0.0039	0.0162	-0.1520	0.0000	0.0000	0.0008	0.1733
CAP	0.1641	0.1443	0.0000	0.0473	0.1320	0.2433	0.8443
BIG4	0.5829	0.4932	0.0000	0.0000	1.0000	1.0000	1.0000
LEV	0.4059	0.2131	0.0005	0.2268	0.4145	0.5552	0.9997
ROA	0.0375	0.0729	-0.4849	0.0101	0.0320	0.0679	0.4745
CFO	0.0493	0.0684	-0.4111	0.0138	0.0459	0.0857	0.4810
GRW	0.0296	0.1708	-0.9282	-0.0498	0.0288	0.1079	0.8826
SIZE	27.0631	1.4823	23.3829	26.0470	26.7639	27.6794	32.3593
SMO	-1.2454	1.3147	-10.4009	-1.4735	-0.8342	-0.4837	-0.0327
ESG	1.7252	1.1463	0.0000	1.0000	1.0000	3.0000	5.0000

변수 설명 : TB는 법인세부담액, LS는 경영자의 근속연수, FOR은 외국인지분율, RND는 연구개발비, CAP는 자본집약도, BIG4는 감사인의 규모, LEV는 부채비율, ROA는 총자산이익률, CFO는 영업현금흐름, GRW는 매출액성장률, SIZE는 기업규모, SMO는 이익유연화 그리고 ESG는 ESG 점수.

통제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FOR의 평균(중위수)은 0.1051(0.0569)로 나타났다. RND와 CAP의 평균(중위수)은 0.0039(0.0000)와 0.1641(0.1320)로 나타났다. RND와 CAP의 경우 평균이 중위수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IG4의 평균(중위수)의 경우에는 0.5829(1.0000)로 나타났다.

LEV와 ROA의 평균(중위수)은 0.4059(0.4145)와 0.0375(0.0320)로 나타났고, CFO와 GRW의 평균(중위수)의 경우에는 0.0493(0.0459)과 0.0296(0.0288)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의 평균은 중위수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SIZE의 평균(중위수)에서는 27.0631(26.7639)로 나타났다. SMO와 ESG의 평균(중위수)은 -1.2454(-0.8342)와 1.7252(1.0000)로 나타났다. SMO의 경우 평균이 중위수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ESG는 평균이 중위수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4>는 본 연구의 모형(식(1))에 포함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피어슨 상관관계) 분석결과로,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TB와 LS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통제변수들의 효과가 통제된 결과는 아니지만,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높은 기업의 경우 법인세부담액이 감소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TB의 경우 FOR, RND, CAP, BIG4, ROA, CFO, GRW, SIZE 그리고 ESG와는 양(+)의 상관관계로 밝혀졌다. 한편, LS와 ROA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경영자의 근속연수와 수익성 간에는 양(+)의 상관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VIF 값을 측정해 보았다. 측정결과, VIF 평균(최댓값)은 1.43(2.43)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중공선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준점(임계치, 10)보다 작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TB	LS	FOR	RND	CAP	BIG4	LEV	ROA	CFO	GRW	SIZE	SMO
LS	-0.0988 ^{***}											
FOR	0.4559 ^{***}	-0.0962 ^{***}										
RND	0.0618 ^{**}	-0.0334	0.0852 ^{***}									
CAP	0.0564 ^{**}	-0.1657 ^{***}	0.1208 ^{***}	0.0264								
BIG4	0.4195 ^{***}	-0.1989 ^{***}	0.2732 ^{***}	0.0884 ^{***}	0.1469 ^{***}							
LEV	-0.0329	-0.1288 ^{***}	-0.0753 ^{***}	-0.0650 ^{***}	0.3227 ^{***}	0.0381						
ROA	0.3649 ^{***}	0.0502 ^{**}	0.2226 ^{***}	0.0955 ^{***}	0.0743 ^{***}	0.0921 ^{***}	-0.1926 ^{***}					
CFO	0.2881 ^{***}	-0.0525 ^{**}	0.2247 ^{***}	0.1035 ^{***}	0.3086 ^{***}	0.1788 ^{***}	-0.0363 ^{***}	0.4878 ^{***}				
GRW	0.1230 ^{***}	-0.0160	0.0114	0.0986 ^{***}	-0.0116	0.0234	0.0959 ^{***}	0.2869 ^{***}	0.0840 ^{***}			
SIZE	0.7159 ^{***}	-0.2703 ^{***}	0.5171 ^{***}	0.0939 ^{***}	0.2635 ^{***}	0.4896 ^{***}	0.1968 ^{***}	0.0717 ^{***}	0.1911 ^{***}	0.0180		
SMO	-0.0059	0.0567 ^{**}	-0.0060	0.0506 ^{**}	0.1325 ^{***}	-0.0483 [*]	0.0733 ^{***}	0.0836 ^{***}	0.1137 ^{***}	0.0395	-0.0150	
ESG	0.4540 ^{***}	-0.2961 ^{***}	0.3410 ^{***}	0.1200 ^{***}	0.1933 ^{***}	0.3434 ^{***}	0.1242 ^{***}	0.0968 ^{***}	0.1961 ^{***}	0.0472 [*]	0.6039 ^{***}	-0.0279

1) ***, ** 및 *는 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변수경의는 <표 3>과 동일함

2. 경영자의 근속연수와 미래의 법인세부담액 간의 관련성

<표 5>는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법인세부담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5>에 나타난 결과를 분석해 보면, LS의 회귀부호는 유의한 양(+)의 부호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법인세부담액은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FOR의 회귀부호는 유의한 양(+)의 부호로 나타났으며, 이는 외국인투자자들의 경우 배당의 재원이 되는 순이익을 선호하므로 외국인지분율은 법인세부담액과 양(+)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표 5> 경영자의 근속연수와 법인세부담액 간의 관련성(가설 1에 대한 검증결과)

$$TB_{i,t+1} = \beta_0 + \beta_1 LS_{i,t} + \beta_2 FOR_{i,t} + \beta_3 RND_{i,t} + \beta_4 CAP_{i,t} + \beta_5 BIG4_{i,t} + \beta_6 LEV_{i,t} + \beta_7 ROA_{i,t} + \beta_8 CFO_{i,t} + \beta_9 GRW_{i,t} + \beta_{10} SIZE_{i,t} + \beta_{11} SMO_{i,t} + \beta_{12} ESG_{i,t} + \beta_{13} YD_{i,t} + \beta_{14} IND + \epsilon_{i,t}$$

변수	회귀계수	t-값
(상수)	-7.1032	-8.00***
LS	0.1105	4.02***
FOR	0.5811	1.63*
RND	-6.7663	-3.25***
CAP	-1.9112	-6.79***
BIG4	0.2624	3.29***
LEV	-0.6454	-3.55***
ROA	8.0455	14.23***
CFO	1.8515	3.06***
GRW	0.4242	2.02**
SIZE	1.0698	31.11***
SMO	-0.0373	-1.42
ESG	0.0215	0.54
YD	포함	
IND	포함	
F-값	125.10***	
Adj.R ²	0.6567	

1) ***, ** 및 *는 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변수정의는 <표 3>과 동일함.

RND와 CAP의 회귀부호는 유의한 음(-)의 부호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개발 활동과 자본투자가 높은 기업일수록 세제 혜택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IG4의 회귀부호는 유의한 양(+)의 값으로 분석되어, 고품질의 감사품질은 법인세부담액을 증가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LEV의 회귀부호는 유의한 음(-)의 부호로 분석되었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이자비용의 절세효과로 인하여, 법인세부담액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ROA, CFO 및 GRW의 회귀부호는 유의한 양(+)의 부호로 나타났다. 높은 회계이익을 보고하고, 우수한 영업현금흐름을 창출하며, 그리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조세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5>를 정리해 보면, 경영자의 근속연수는 법인세부담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경영자의 긴 근속연수는 회계이익을 높이는 유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조세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경영자의 근속연수와 수익성 및 영업현금흐름 간의 관련성

<표 6>은 위의 식(2)를 분석한 결과이고, <표 7>의 경우에는 위의 식(3)을 분석한 결과 값을 제시한 표이다. 먼저, <표 6>을 분석해 보면, LS는 유의한 양(+)의 부호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길어지면 회계이익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의 LEV는 유의한 음(-)의 부호로 나타났다. 그리고 CFO와 GRW는 유의한 양(+)의 부호로 나타났다.

<표 7>의 LS 회귀부호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영자의 근속연수와 영업현금흐름 간에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표 7>의 RND, CAP, BIG4, ROA 및 ESG 회귀부호는 유의한 양(+)의 부호로 나타났다. SMO 회귀부호는 유의한 음(-)의 부호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된 <표 5>는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보고이익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미래의 조세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표 5>는 경영자의 긴 근속연수가 기업의 경영성과를 개선시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지만, 경영자가 임기 후반부에 접어들수록 상향 이익조정을 수행하여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표 6>과 <표 7>에서는 경영자 근속연수의 경우 보고이익과는 양(+)의 관련성을 가지지만, 영업현금흐름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영자는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경영성과를 개선시켜 보고이익으로 높이기보다 이익조정을 이용하여 보고이익을 높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경우,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조세부담이 증가한다는 <표 5>의 결과는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경영성과가 개선되기보다 상향 이익조정이 발생하여 보고이익이 증

가함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즉, <표 5>의 결과는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상향 이익조정으로 인하여 보고이익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미래의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표 6〉 경영자의 근속연수와 총자산이익률(ROA) 간의 관련성(가설 2에 대한 검증결과)

$$ROA_{i,t} = \beta_0 + \beta_1 LS_{i,t} + \beta_2 FOR_{i,t} + \beta_3 RND_{i,t} + \beta_4 CAP_{i,t} + \beta_5 BIG4_{i,t} + \beta_6 LEV_{i,t} + \beta_7 CFO_{i,t} + \beta_8 GRW_{i,t} + \beta_9 SIZE_{i,t} + \beta_{10} SMO_{i,t} + \beta_{11} ESG_{i,t} + \beta_{12} YD_{i,t} + \beta_{13} IND + \epsilon_{i,t}$$

변수	회귀계수	t-값
(상수)	0.0706	1.80*
LS	0.0034	2.76***
FOR	0.0700	4.47***
RND	0.0107	0.12
CAP	0.0025	0.20
BIG4	0.0024	0.68
LEV	-0.0679	-8.64***
CFO	0.4664	19.38***
GRW	0.1068	11.97***
SIZE	-0.0018	-1.22
SMO	-0.0014	-1.18
ESG	0.0012	0.69
YD	포함	
IND	포함	
F-값	39.28***	
Adj.R ²	0.3616	

1) ***, ** 및 *는 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변수의 정의는 <표 3>과 동일함

〈표 7〉 경영자의 근속연수와 영업현금흐름(CFO) 간의 관련성(가설 3에 대한 검증결과)

$$CFO_{i,t} = \beta_0 + \beta_1 LS_{i,t} + \beta_2 FOR_{i,t} + \beta_3 RND_{i,t} + \beta_4 CAP_{i,t} + \beta_5 BIG4_{i,t} + \beta_6 LEV_{i,t} + \beta_7 ROA_{i,t} + \beta_8 GRW_{i,t} + \beta_9 SIZE_{i,t} + \beta_{10} SMO_{i,t} + \beta_{11} ESG_{i,t} + \beta_{12} YD_{i,t} + \beta_{13} IND + \epsilon_{i,t}$$

변수	회귀계수	t-값
(상수)	0.0114	0.31
LS	0.0005	0.48
FOR	0.0161	1.09
RND	0.1816	2.11**
CAP	0.1178	10.45***
BIG4	0.0079	2.38**
LEV	-0.0115	-1.52
ROA	0.4081	19.38***
GRW	-0.0064	-0.74
SIZE	-0.0001	-0.08
SMO	-0.0024	-2.19**
ESG	0.0056	3.39***
YD	포함	
IND	포함	
F-값	39.68***	
Adj.R ²	0.3640	

1) ***, ** 및 *는 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변수의 정의는 <표 3>과 동일함.

4.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수익성(영업현금흐름)과 법인세부담액 간의 관련성에 미치는 추가적인 영향

<표 8>은 식(4)를 분석한 결과이고, <표 9>는 식(5)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8>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ROA 회귀부호는 유의한 양(+)의 부호를 가지며, LS×ROA 회귀부호는 유의한 양(+)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의 근속연수는 보고이익과 미래 조세부담 사이의 양(+)의 관련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9>에서는 CFO 회귀부호는 양(+)의 부호로 나타났지만, LS×CFO 회귀부호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영업현금흐름과 미래 조세부담 간의 양(+)의 관련성에 경영자의 근속연수는 추가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와 <표 9>에 나타난 통제변수의 결과에 따르면, RND, CAP, LEV의 회귀부호는 유의한 음(-)의 부호로 분석되었다. BIG4와 GRW의 회귀부호는 유의한 양(+)의 값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통제변수의 결과는 <표 5>와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과 <표 9>는 앞서 제시된 <표 6>과 <표 7>의 결과 값과 유사한 것으로,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경영성과가 개선되어 보고이익이 증가될 유인보다 이익조정을 통하여 보고이익이 증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8〉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ROA와 법인세부담액 간의 관련성에 추가적으로 미치는 영향
(가설 4에 대한 검증결과)

$$TB_{i,t+1} = \beta_0 + \beta_1 LS_{i,t} + \beta_2 LS_{i,t} \times ROA_{i,t} + \beta_3 FOR_{i,t} + \beta_4 RND_{i,t} + \beta_5 CAP_{i,t} + \beta_6 BIG4_{i,t} \\ + \beta_7 LEV_{i,t} + \beta_8 ROA_{i,t} + \beta_9 CFO_{i,t} + \beta_{10} GRW_{i,t} + \beta_{11} SIZE_{i,t} + \beta_{12} SMO_{i,t} \\ + \beta_{13} ESG_{i,t} + \beta_{14} YD_{i,t} + \beta_{15} IND + \epsilon_{i,t}$$

변수	회귀계수	t-값
(상수)	-7.0616	-7.97***
LS	0.0790	2.59**
LS×ROA	0.8676	2.39**
FOR	0.5396	1.52
RND	-6.7722	-3.26***
CAP	-1.9287	-6.86***
BIG4	0.2552	3.20**
LEV	-0.6394	-3.52***
ROA	4.2495	2.52**
CFO	1.8935	3.14***
GRW	0.4315	2.05**
SIZE	1.0734	31.23***
SMO	-0.0407	-1.55
ESG	0.0220	0.55
YD	포함	
IND	포함	
F-값	120.86***	
Adj.R ²	0.6577	

1) ***, ** 및 *는 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변수의 정의는 <표 3>과 동일함.

〈표 9〉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CFO와 법인세부담액 간의 관련성에 추가적으로 미치는 영향
(가설 5에 대한 검증결과)

$$TB_{i,t+1} = \beta_0 + \beta_1 LS_{i,t} + \beta_2 LS_{i,t} \times CFO_{i,t} + \beta_3 FOR_{i,t} + \beta_4 RND_{i,t} + \beta_5 CAP_{i,t} + \beta_6 BIG4_{i,t} \\ + \beta_7 LEV_{i,t} + \beta_8 ROA_{i,t} + \beta_9 CFO_{i,t} + \beta_{10} GRW_{i,t} + \beta_{11} SIZE_{i,t} + \beta_{12} SMO_{i,t} \\ + \beta_{13} ESG_{i,t} + \beta_{14} YD_{i,t} + \beta_{15} IND + \epsilon_{i,t}$$

변수	회귀계수	t-값
(상수)	-7.1032	-8.00***
LS	0.1105	3.34***
LS×CFO	0.0005	0.01
FOR	0.5811	1.63
RND	-6.7663	-3.25***
CAP	-1.9112	-6.78***
BIG4	0.2624	3.29***
LEV	-0.6454	-3.55***
ROA	8.0455	14.22***
CFO	4.6581	2.10**
GRW	0.4242	2.01**
SIZE	1.0698	31.05
SMO	-0.0373	-1.42
ESG	0.0215	0.54
YD	포함	
IND	포함	
F-값	120.21***	
Adj.R ²	0.6565	

1) ***, ** 및 *는 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변수의 정의는 <표 3>과 동일함.

이러한 점에서, 경영자의 긴 근속연수는 ROA와 미래 법인세부담액 사이의 양(+)의 관련성을 증가시키지만, CFO와 미래 법인세부담액 간의 관련성에는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이 연구는 경영자의 근속연수와 조세부담 간의 관련성을 실증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세부담을 미래의 법인세부담액으로 측정하여,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미래의 법인세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자의 근속연수는 미래의 법인세부담액과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조세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경영성과가 개선되어 미래의 조세부담이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이익조정이 발생하여 미래의 조세부담이 증가한 것인지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경영자 근속연수의 경우 보고이익과는 양(+)의 관련성이 있으나, 영업현금흐름(CFO)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 근속연수의 경우 보고이익을 증가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지만, 영업현금흐름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보고이익과 영업현금흐름이 미래 법인세부담액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경영자의 근속연수는 보고이익과 미래 법인세부담액 간의 양(+)의 관련성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경영자의 근속연수는 영업현금흐름과 미래 법인세부담액 간의 양(+)의 관련성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경영성과가 개선되는 유인보다 이익조정을 통하여 보고이익을 높이하고자 하는 유인이 높으므로, 경영자의 근속연수는 미래의 법인세부담액과 양(+)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즉,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이익을 상향으로 조정하는 유인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미래의 법인세부담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길어짐에 따라 영업현금흐름이 수반되지 않고, 수익성 지표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이익조정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본 연구는 경영자의 근속연수와 관련된 상반된 연구결과 중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보고이익을 높이하고자 하는 유인이 높다는 결과를 미래의 법인세부담액을 통하여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보고이익을 높이하고자 하는 유인이 재무보고의 품질을 높이하고자 하는 유인보다 높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업이 묵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조세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참고문헌

- 고윤성 · 백혜원. 2010. “가족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7권 제2호 : 49-76.
- 고종권. 2000.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을 이용한 소득이전과 조세최소화”. 회계학연구. 제25권 제2호 : 51-77.
- 구정호. 2011. “이익조정 유인이 원가의 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 : 적자회피 및 이익유연화, Big-Bath를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36권 제3호 : 135-177.
- 곽태완 · 노준화. 2008. “재량적 발생액이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17권 제3호 : 1-20.
- 김일경 · 이호욱. 2013. “경영자의 임기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경영자 직무 요구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전략경영연구 제16권 제1호 : 1-22.
- 박서윤 · 이현주 · 정현욱 · 이강일. 2013. “자율공시수준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제28권 제2호 : 17-55.
- 박종국 · 홍영은. 2009. “조세회피와 외국인지분율”. 세무학연구 제26권 제1호 : 105-135.
- 백원선 · 최관. 1999. “이익조정과 법인세최소화 동기”. 회계학연구 제24권 제1호 : 115-140.
- 신승묘. 2005. “유효법인세율과 부채비율 사이의 인과관계 분석과 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유효성평가”. 회계학연구 제30권 제4호 : 77-108.
- 안숙찬. 1996. “조세부담과 기업특성”. 세무학연구 제8호 : 125-152.
- 안숙찬. 2011. “조세부담과 기업집단”. 세무와회계저널 제12권 제4호 : 279-305.
- 유재권 · 백원선. 2011. “이익유연화와 법인세유연화에 따른 이익조정과 세무조정 간의 관계”. 기업경영연구 제18권 제1호 : 241-263.
- 육근호 · 최미화. 2022. “기업지배구조와 ESG/통합보고서의 중요성 공시 품질 : CEO 파워와 이사회 특성의 상호작용”. 경영학연구 제51권 제6호 : 1791-1815.
- 이상철. 2014. “경영자 및 기업지배구조 특성과 원가행태 비대칭성 사이의 관련성”. 회계저널 제23권 제2호 : 251-282.
- 정현욱 · 이현주. 2013. “지분율과리도가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4권 제1호 : 9-30.
- 정현욱. 2024. “경영자의 근속연수와 수익비용대응 수준 간의 관련성”. 경영학연구 제53권 제6호 : 1399-1421.
- 정현욱. 2017. “자율공시수준과 법인세부담액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8권 제6호 : 129-149.
- 정현욱 · 변선영. 2022. “기업의 ESG 활동과 법인세부담액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정현욱 · 이현주 · 이강일. 2014. “외국인지분율과 법인세부담액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세무

- 학연구 제31권 제1호 : 105-133.
- 최동춘 · 서정록. 2013.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의 관계”. 회계와 정책연구 제18권 제1호 : 1-27.
- 최미화 · 이균봉. 2010. “감사품질 및 회계보수성과 조세적 유인”. 대한경영학회지 제23권 제2호 : 927-953.
- 최보람. 2013. “현금흐름을 이용한 현금유효세율의 특성”. 국제회계연구 제49집 : 507-530.
- 최정호. 2014. “시설투자, 투자효율성 및 기업성과”. 세무와회계저널 제15권 제4호 : 47-74.
- 황광철 · 고종권 · 박희진. 2020.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이용한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자 거래와 조세회피”. 세무학연구 제37권 제2호 : 97-135.
- Afonso, E., L. Brooks, A. Simonov, and J. H. Zhang. 2019. CEO career concerns and expectations management. *Journal of Applied Accounting Research* 20(3) : 267-289.
- Ali, A., and W. Zhang. 2015. CEO tenure and earnings managemen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9(1) : 60-79.
- Finkelstein, S., Hambrick, and A. Cannella. 2009. *Strategic Leadership : Theory and Research on Executives, Top Management Teams, and Boards*.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 Garcia-Blandon, J., J. M. Argilés-Bosch, and D. Ravenda. 2019.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EO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Economics and Management* 20(6) : 1064-108.
- Gibbons, R., and K. Murphy. 1992. Optimal incentive contracts in the presence of career concerns :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0(3) : 468-505.
- Graham, J. R., and A. Tucker. 2006. Tax Shelters and Corporate Debt Policy.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1(3) : 563-594.
- Hambrick, D. C., and G. D. S. Fukutomi. 1991. The seasons of a CEO's tenur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6(4) : 719-742.
- Levinthal, D. A., and J. G. March. 1993. The myopia of learning.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4(2) : 95-112.
- Miller, D. 1991. Stale in the saddle : CEO Tenure and the Match between Organization and Environment. *Management Science* 37(1) : 34-52.
- Muttakin, M. B., G. Tanewski, and A. Khan. 2019. CFO tenure, CFO board membership and accounting conservatism. *Journal of Contemporary Accounting & Economics* 15(3) : 100-165.
- Porcano, T. 1986. Corporate Tax Rates : Progressive, Proportional, or Regressive.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spring : 17-31.

- Triyani, A., S. W. Setyahun, and K. Kiryanto. 2020. The Effect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Disclosure on Firm Performance : The Role of Ceo Tenure. *Jurnal Reviu Akuntansi dan Keuangan* 10(2) : 261–270.
- Wu, S., E. Levitas, and R. L. Priem. 2005. CEO tenure and company invention under differing levels of technological dynamism.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8(5) : 859–873.

The Effect of the CEO Tenure on the Tax Burden*

Hyun Uk Jung** · Sun-Young Byun***

〈Abstract〉

We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CEO tenure and future tax burden. We measured tax burden as corporate tax burden.

The test results show that CEO tenure had a positive relation with future corporate tax burden. These results suggest that long CEO tenure is a factor that increases future tax burden.

We test whether CEO tenure has any additional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ROA(CFO) and future corporate tax burden. The test results show that CEO tenure increases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ROA and future corporate tax burden. However, CEO tenure does not have any additional effect on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CFO and future corporate tax burden. This can be interpreted as CEO tenure increases the incentive for earnings management, increasing future tax burden.

This study suggests that long CEO tenure contributes to the incentive to increase net income through earnings management. This is expected to provide implications that long tenure of executives can be a negative factor in the quality of financial reporting.

〈Key words〉 CEO Tenure, Corporate Tax Burden, Earnings Management

* This work is supported by the Dong-A University research fund.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Dong-A University, biglotos@dau.ac.kr, First Author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International Trade, Dong-A University, byeunsy@dau.ac.kr,
Corresponding Author